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발행(2019. 7. 31)
제2019-7월호(통권 47호)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ISSUE PAPER

스포츠산업 노동시장 고용 추이 및 특성 분석

작성: 김상호(경동대학교)

Ⅰ 서론
Ⅱ 스포츠산업 부문 고용 현황 분석
Ⅲ 스포츠산업 부문 종사자 수요 전망
Ⅳ 시사점

KISS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요 약

본 연구는 스포츠산업의 고용구조와 현황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여 고용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스포츠산업 노동시장의 고용 수요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산업 고용 추이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의「산업특수분류」중 스포츠산업 분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20개 소분류, 65개 하위분류를 적용한 2012~2017년 기준으로 수행된「스포츠산업 실태조사」와「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스포츠산업 순고용 증가 추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2017년 기간의 스포츠산업 연평균성장률은 4.32%로 동일 기간 전산업 종사자수 연평균성장률(CAGR) 1.5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2년 이래 전산업에 스포츠산업이 차지하는 종사자수 비중이 증가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스포츠 시설업은 연평균 5.85% 증가해 오고 있고, 스포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온다. 반면, 스포츠 용품업과 스포츠 서비스업은 각각 연평균 2.57%, 4.31% 성장해 왔지만 스포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소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20개의 소분류 영역 중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영역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CAGR 22.84%) 외 3개 영역으로 조사되었으며, 5~10% 미만으로 증가한 영역은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CAGR 9.28%) 외 6개 영역이 해당되었으며, 0~5% 미만에 해당되는 영역은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CAGR 4.33%) 외 2개 영역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영역은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CAGR -19.73%) 외 5개 영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2012~2017년 스포츠산업 종사자수를 바탕으로 추세분석법을 사용하여 2025년까지의 종사자 수요를 전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스포츠산업 종사자수는 연평균 3.23% 증가하여 약 778천명의 순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분류별 순고용자 수요를 예측한 결과 스포츠 시설업이 약 405천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스포츠 용품업(191천명), 스포츠 서비스업(183천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Ⅰ.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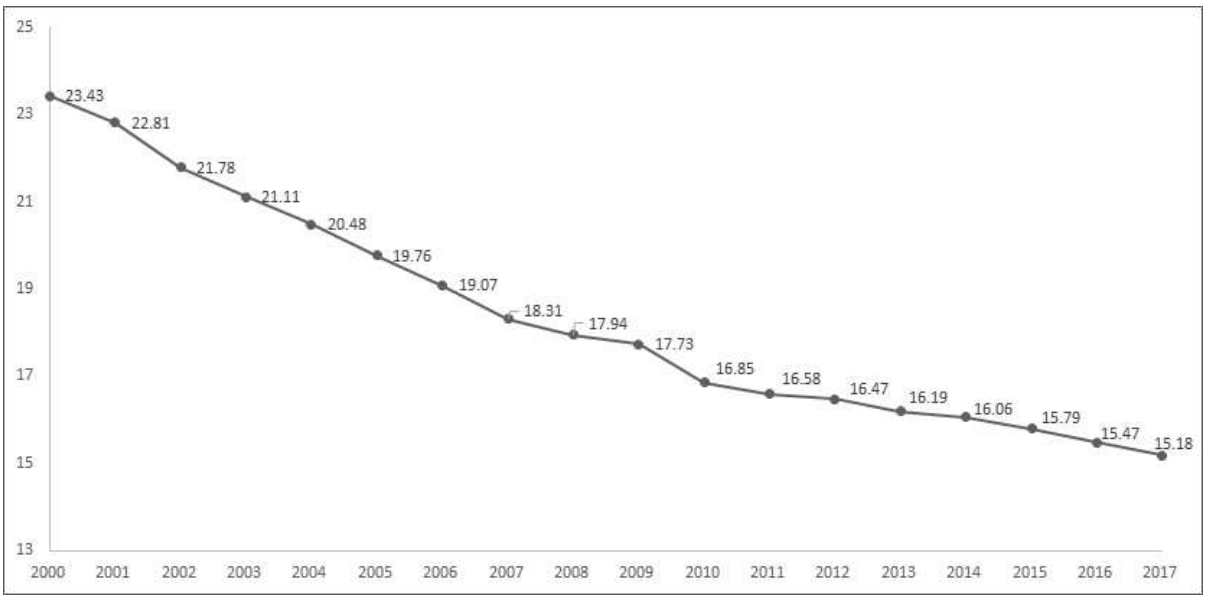
국내 취업자 수 증감 폭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반사적 고용증가와 적극적 일자리 대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2000년에는 23.43에서 2017년에는 15.18로 급격히 감소하는 취업계수* 추이를 보았을 때, 국내 노동시장에서 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 국내 취업자 수 및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시점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증가율	실업률	고용률
2012	24,681	437	1.80	3.2	59.4
2013	25,066	385	1.56	3.1	59.5
2014	25,599	533	2.13	3.5	60.2
2015	25,936	337	1.32	3.6	60.3
2016	26,235	299	1.15	3.7	60.4
2017	26,552	317	1.21	3.7	60.7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취업계수」

그림 1. 연도별 취업계수 추이 (단위: 명/10억 원)

* 취업계수는 실질GDP 10억 원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한편 스포츠산업 부문에서는 국내 전반적인 산업의 고용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산업 노동환경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1~4인 사업체수의 비중이 전체의 88.2%(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스포츠산업의 열악한 소규모 형태의 고용 구조로 향후 노동환경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소득의 완만한 성장세, 주 52시간 단축 근무 시행에 따른 여가 시간 증가, 건강에 관심이 있는 소비 계층의 확산, 기술 혁명을 통한 스포츠 분야 신시장 형성 등 다양한 상황은 스포츠 수요를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이고 향후 스포츠산업 노동시장 고용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구조와 현황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여 고용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스포츠산업 노동시장의 고용 수요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스포츠산업 고용효과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스포츠산업 부문 고용 현황 분석

문화체육관관부에서 2008년부터 실시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는 스포츠산업 전반의 실태 및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스포츠산업 시장 전체규모 뿐만 아니라 종사자 규모, 인력채용 현황, 영업손익, 스포츠서비스업의 연간이용객 현황 등을 포함한다. 또한 2010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을 받아 국민에게 스포츠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등을 알리기 위한 공표의 목적을 두고 2017년 기준조사까지 9회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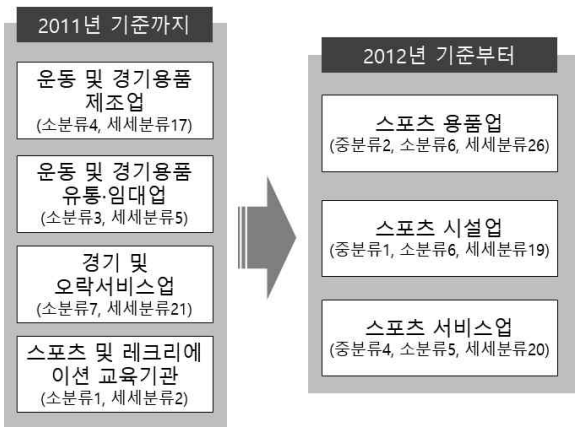


그림 2. 스포츠산업 분류 체계

국가승인통계 지정 목적에 부합하기 2008~2011년 기준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산업특수분류」중 스포츠산업 분류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을 4개의 대분류, 15개의 중분류, 45개의 하위분류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나, 2012년 기준조사부터는 스포츠산업의 현실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30개의 신설업종을 포함하는 3개의 대분류, 7개의 중분류, 20개의 소분류, 65개의 하위분류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분류 체계에 따라 실시된 2012~2017년「스포츠산업 실태조사」결과와 통계청의 대표적인 가구조사인「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스포츠산업 고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2. 스포츠산업 신분류 체계의 신설업종

대분류	신설업종
스포츠 용품업	①셔츠 및 외의 도매업, ②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③신발 도매업, ④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⑤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⑥신발 소매업. ⑦전자상거래업, ⑧기타 통신 판매업, ⑨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⑩방문 판매업
스포츠 시설업	①기원 운영업, ②조경 건설업, ③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스포츠 서비스업	①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②경영컨설팅업, ③신문 발행업, ④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⑤라디오 방송업, ⑥지상파 방송업, ⑦프로그램 공급업, ⑧유선 방송업, ⑨위성 및 기타 방송업, ⑩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⑪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⑫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⑬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⑭국내 여생사업, ⑮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1. 스포츠산업 부문의 종사자수 추이

2017년 조사기준「스포츠산업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4백 2십만명이 스포츠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청의 대표적인 가구조사인「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서 제시된 전산업 약 27,580천명 종사자의 1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평균성장률(CAGR)을 살펴보면, 스포츠산업 종사자수 연평균성장률은 4.32%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산업 종사자수의 연평균성장률(1.58%)보다 높게 나타나 2012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스포츠산업 종사자수가 전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오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대분류에서 스포츠 시설업의 연평균성장률은 5.85%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스포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스포츠 용품업과 스포츠 서비스업은 연평균성장률이 차례로 2.57%, 4.31%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전산업 종사자수 연평균성장률(1.5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스포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마이너스 연평균성장률로 지속적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스포츠산업 종사자수 현황

(단: 천 명, %)

취업자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	CAGR
경제활동인구조사(A)		25,501	25,873	26,536	26,913	27,247	27,580	2,079	1.58
스포츠산업(B)		3,424	3,547	3,731	3,831	3,985	4,231	807	4.32
비중(B/A×100)		13.4	13.7	14.1	14.2	14.6	15.3	1.90	2.70
스포츠 시설업	종사자수(C)	1,336	1,467	1,534	1,609	1,656	1,775	439	5.85
	(C/B×100)	39.0	41.4	41.1	42.0	41.6	42.0	2.93	1.46
스포츠 용품업	종사자수(D)	1,229	1,228	1,293	1,300	1,375	1,395	166	2.57
	(D/B×100)	35.9	34.6	34.7	33.9	34.5	33.0	-2.92	-1.68
스포츠 서비스업	종사자수(E)	859	852	904	922	954	1,061	202	4.31
	(E/B×100)	25.1	24.0	24.2	24.1	23.9	25.1	-0.01	-0.01

2. 스포츠산업 하위분류의 취업자수 추이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65개의 하위분류 기준으로 취업자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산업 취업자수 추이를 3개의 대분류와 20개의 소분류에 따라 살펴보았다.

6개 소분류 산업영역을 포함하는 스포츠 시설업의 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2012년 약 1,336천명에서 연평균 5.85% 증가하여 2017년 약 1,77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독립된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경마 및 경주차 소유주, 코치, 스포츠행사 기획자, 경기후원단체,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 활동, 경마 및 경주견의 훈련활동 등을 포함하는 기타스포츠 시설 운영업이 연평균 15.76% 증가하여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CAGR 9.28%), 스포츠건설업(CAGR 8.68%),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CAGR 6.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개 소분류 산업영역을 포함하는 스포츠 용품업의 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2012년 약 1,229천명에서 2017년 약 1,395천명까지 연평균 2.57%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자전거 도매업, 스포츠 의류 도매업, 스포츠 가방 도매업, 스포츠 신발 도매업을 포함하는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이 연평균성장률이 7.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과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은 각각 4.26%와 6.04%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스포츠산업의 소분류에 따른 종사자수 현황

(단위: 천 명, %)

대분류	소분류	종사자 수						2012~201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	CAGR
스포츠 시설업	경기장 운영업	72	54	65	79	81	81	9	2.38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889	926	913	946	1,012	1,099	210	4.3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240	323	343	373	368	374	134	9.28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35	35	46	44	42	48	13	6.52
	기타스포츠 시설 운영업	38	75	60	62	70	79	41	15.76
	스포츠건설업	62	54	107	105	83	94	32	8.68
소계		1,336	1,467	1,534	1,609	1,656	1,775	439	5.85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72	87	106	104	109	98	26	6.36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235	166	166	170	189	189	-46	-4.26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	71	65	68	65	52	52	-19	-6.0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160	192	189	190	222	230	70	7.53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664	690	727	736	769	791	127	3.56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27	28	37	35	34	35	8	5.33
소계		1,229	1,228	1,293	1,300	1,375	1,395	166	2.57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경기업	9	14	17	19	21	22	13	19.57
	스포츠 베팅업	62	83	62	55	55	55	-7	-2.37
	스포츠 마케팅업	52	75	79	84	89	95	43	12.81
	스포츠 미디어업	26	13	11	10	17	20	-6	-5.11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	2	1	1	1	1	-2	-19.73
	스포츠 교육기관	388	413	455	478	483	511	123	5.66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59	79	94	91	97	165	106	22.84
	스포츠 여행업	260	173	185	184	191	192	-68	-5.88
소계		859	852	904	922	954	1,061	202	4.31
합계		3,424	3,547	3,731	3,831	3,985	4,231	807	4.32

8개 소분류 산업영역을 포함하는 스포츠 서비스업의 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2012년 약 859천명에서 2017년 약 1,061천명까지 5년간 연평균 4.31%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과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의 연평균성장률이 2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및 스포츠클럽 운영 산업 활동을 포함하는 스포츠 경기업(CAGR 19.57%)과 스포츠 에이전트업, 회원권 대행 판매업,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기타 스포츠 마케팅업을 포함하는 스포츠 마케팅업(CAGR 12.81%)은 5년간 10% 대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19.73%), 스포츠 여행업(-5.88%), 스포츠 미디어업(-5.11%), 스포츠 베팅업(-2.37%)은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Ⅲ. 스포츠산업 부문 종사자 수요 전망

스포츠산업 부문 취업자 수요 전망치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시계열 예측방법 중 추세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근본적으로 회귀분석과 같으며 시간에 따른 시계열 자료의 추세선을 유도함으로써 그 추세선상에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즉 시간을 독립변수로 놓고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추세선을 구하는 방법이다.

$$\hat{Y}t = a + bt$$

t : 기간 (t = 1, 2, 3, ...)
$\hat{Y}t$: 기간 t의 시계열 값의 예측치
a : t = 0일 때, $\hat{Y}t$의 값, 즉 $\hat{Y}t$ 축의 절편
b : 추세선의 기울기

그 결과 스포츠산업 전체의 종사자 수는 2020년 4,516천명에서, 2021년 4,672천명, 2022년 4,828천명, 2023년 4,983천명, 2024년 5,139천명, 2025년 5,295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20년에서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스포츠산업 취업자수는 연평균 3.23% 증가하여 약 778천명의 순고용 증가가 예상된다.

스포츠산업 대분류를 바탕으로 종사자 수요를 전망해 보면, 스포츠 시설업의 연평균성장률이 4.05%로 3개 중 가장 큰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5천명의 순고용 증가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연평균 3.37% 증가하여, 2020년부터 5년간 약 191천명의 순고용 증가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용품업은 연평균 2.43%로 스포츠산업의 연평균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5년간 약 183천명의 순고용 증가를 나타냈다.

표 5. 스포츠산업 대분류에 따른 종사자 수요 전망

(단위: 천 명,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CAGR
스포츠산업	4,516	4,672	4,828	4,983	5,139	5,295	3.23
스포츠 시설업	1,847	1,928	2,009	2,090	2,171	2,252	4.05
스포츠 용품업	1,431	1,468	1,504	1,541	1,577	1,614	2.43
스포츠 서비스업	1,059	1,097	1,135	1,173	1,211	1,249	3.37

스포츠산업의 소분류별로 살펴보면, 스포츠 시설업에서 포함하는 6개의 소분류 산업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성장률은 5.86~3.27% 증가를 보였으며, 그 중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이 5.86%로 가장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음으로 스포츠건설업(CAGR 5.74%),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CAGR 5.12%),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CAGR 4.39%), 경기장 운영업(CAGR 4.27%),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CAGR 3.27%) 순으로 연평균성장률을 나타냈다.

또한 순고용 규모를 살펴보면,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약 192천명의 순고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다음으로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119천명), 스포츠건설업(35천명), 기타스포츠 시설 운영업(27천명), 경기장 운영업(20천명),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12천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용품업에서 포함하는 6개의 소분류 산업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성장률은 -9.83~4.75%의 증감을 나타냈다. 그 중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이 4.75%로 가장 큰 연평균성장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CAGR 4.40%),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CAGR 3.87%),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CAGR 2.90%)의 순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성장을 예측한 반면,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과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은 차례로 -2.79%와 -9.83%로 조사되어 향후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고용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의 순고용 인원은 약 126천명으로 예측되었으며, 다음으로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63천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28천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8천명)으로 증가추세인 반면,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과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은 5년간 차례로 22천명과 20천명의 고용 감소가 예상되었다.

표 6. 스포츠산업 소분류에 따른 종사자 수요 전망

(단위: 천 명, %)

대분류	소분류	종사자 수						2012~2017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CAGR
스포츠 시설업	경기장 운영업	86	90	94	98	102	106	4.27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1,098	1,137	1,175	1,213	1,252	1,290	3.27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420	444	468	492	516	540	5.12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50	52	55	57	60	62	4.39
	기타스포츠 시설 운영업	83	89	94	100	105	111	5.86
	스포츠건설업	109	116	123	130	137	144	5.74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15	121	126	132	138	143	4.40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170	166	161	157	152	148	-2.79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	48	45	41	37	33	29	-9.83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241	254	266	279	292	304	4.75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818	843	868	893	918	943	2.90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38	40	41	43	45	46	3.87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경기업	26	28	31	33	36	38	8.26
	스포츠 베팅업	49	46	42	39	35	31	-8.66
	스포츠 마케팅업	105	113	120	128	135	143	6.27
	스포츠 미디어업	14	14	13	13	12	12	-4.04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0	-	-	-	-	-	-
	스포츠 교육기관	539	564	588	612	636	661	4.13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156	172	189	205	222	239	8.93
	스포츠 여행업	169	161	152	144	136	128	-5.41

스포츠 서비스업에서 포함하는 8개의 소분류 산업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성장률은 -8.66~8.93%의 증감을 나타냈다. 그 중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이 8.93%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스포츠 경기업(CAGR 8.26%), 스포츠 마케팅업(CAGR 6.27%), 스포츠 교육기관(CAGR 4.13%)의 순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고용 증가가 예측된 반면, 스포츠 미디어업(CAGR -4.04%), 스포츠 여행업(CAGR -5.41%), 스포츠 베팅업(CAGR -8.66%)로 마이너스 성장률로 조사되었다.

또한 순고용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스포츠 교육기관은 약 121천명의 순고용 증가로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83천명), 스포츠 마케팅업(37천명), 스포츠 경기업(13천명)의 순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낸 반면, 스포츠 미디어업(-3천명), 스포츠 베팅업(-18천명), 스포츠 여행업(-41천명)은 고용 감소가 예상되었다.

Ⅳ. 시사점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취업계수 추이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창출 능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산업 노동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국민소득의 증가, 주 52시간 단축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건강 관심 소비 계층 확산, 기술 혁명에 따른 스포츠 분야 신시장 형성 등으로 스포츠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고용구조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긍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포츠산업 고용창출 정책을 수립할 때 국내 스포츠산업 고용구조와 현황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2017년 기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스포츠산업의 고용구조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고용 수요를 예측하였다. 이는 스포츠산업 고용효과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발간목적: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는 스포츠산업 전반 현안을 집중 분석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포츠산업 성장에 필요한 대안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편집위원회

편집 위원: 정지명(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유의동(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김상훈(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수(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고경진(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신성연(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박선영(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